2019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 자료집

- 인문계열(경제경영) -

서강대학교 입학처

목 차

▢ 문제 3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6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문제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된 정책과 근로시간단축의 실시로 인한 영향을 [나]~[마]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바]를 이용하여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시 이후 나타난 [사]의 현상을 설명하시오.

제시문

[가]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은 유효수요 부족을 고려하여 총수요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있다. 소득 분배의 양극화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경제 성장을 악화 시키지 않도록 기본적인 소득 분배 및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여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소득의 틀을 마련하고 총수요를 끌어올리는데 있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및 상승을 실질 임금 증가를 통해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높여 소비 근간을 만들고 내수를 확대하여, 총수요 측면이 활성화되는 이른바 임금을 통한 소득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하는 성장의 패러다임이다.(…)노동소득의 평균소비성향을 살펴보면 소득하위집단의 평균소비 성향이 소득상위 집단의 약 두 배 가깝게 구매력 및 평균소비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인상은 임금소득 하위 집단의 노동소득분배율 증가로 이어져 이들의 절대적 소득 증대와 소득분배에 기여하여 소비 탄력성을 크게하고 유효 수요를 활성화시키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한송이(2015)

[나]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쏘아 올린 여파가 상당하다. 취업포털 “000”가 자영업자 2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설문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4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들에게 “귀하가 운영하시는 점포에서는 올 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아르바이트 직원 수]에 변화가 있었습니까?”라고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변함없다’(50%)와 ‘줄었다’(48%)가 비슷한 비율이었다. 문제는 인건비였다. 응답자의 무려 61%가 지난해 대비 월평균 인건비가 늘었다고 답했기 때문. 이는 전년보다 줄거나(20%) 같은(19%) 비율의 합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년 대비 인건비가 늘었음을 토로했다. 이는 자연스레 매출과 수익의 감소로 이어졌다. 전년대비 매출감소가 있다고 밝힌 자영업자는 전체의 53%, 수익감소는 이보다 높은 64%에 달했다. 매출과 수익이 반대로 늘어난 경우는 각 6%, 4%에 불과했다.

-[파이낸셜뉴스]. 2018.08.09.

[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6월호에 실린 '근로시간 단축'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계산해 채용 가능한 일자리 수를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최대 1만5,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됐다. (...)대기업은 이미 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대비해왔다. 000 그룹은 주 52시간보다 더 나아가 주 35시간제를 올해 1월부터 도입했다. (…) 4대 그룹 관계자는 "대기업은 노사 협의에 따라 휴일 근로 수당을 현행법인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주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영향이 없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 000경제연구원은 기업이 주 최장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후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연간 12조1000억 원으로 집계했다. 이 중 71%(8조600억 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부담이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도 걱정이다. 플라스틱 사출 및 도금 전문중소기업 대표는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설비를 늘리든지 인력을 늘려야 한다. 비용은 늘어나고 올 사람 구하기도 힘드니 이중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시간외수당에 의존해온 저임금자도 고민이 많다. 대형마트 계산원 B 씨는 "저임금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쉬는 것보다 일을 더 하고 돈으로 받고 싶다"고 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올해부터 운전기사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춰봤다. 그러자 한때 5000만 원이던 기사 연봉이 3600만 원으로 줄어들어 몰래 '투잡'을 알아본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한국일보].2018.06.18. [동아일보]. 2018.0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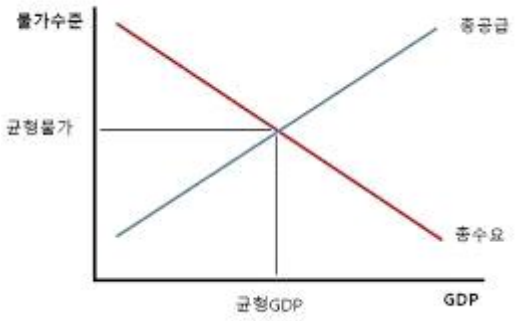
[라]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 덕분에 백화점들의 숨통이 트였다. 15일 000백화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평일 저녁 부쩍 늘어난 직장인 고객에 힘입어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직장인이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퇴근 후 백화점을 찾아 구매력이 늘었다는 해석이다. 백화점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평일 오후 6시 이후 매출이 전달과 비교해 8.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매출 신장률(2.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백화점의 주 고객층인 3040 매출이 주 52시간 근무제 전후를 비교해 약 12%가량 증가하며 저녁 시간 매출 신장을 견인했다. 주변에 사무실이 밀집해 직장인들이 방문하기 편리한 3개 점포의 평일 저녁 매출은 전달보다 5.8% 늘었고, 평일 저녁 6시 이후 비중은 전체 매출 가운데 약 25.1%를 차지했다. 000백화점 관계자는 "퇴근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쇼핑을 평일 저녁에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프로모션(판촉행사)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2018.8.16

[마]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 빈곤층 임금이 당연히 올라간다. 하지만 수혜 대상은 중산층에 속하는 근로자가 더 많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분포 비중을 조사한 결과, 빈곤가구 구성원은 24.3%인 반면 저소득 가구는 12.8%, 중산층 이상 가구원은 63%나 된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수혜가 중산층 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주로 청소년, 청년, 기혼 여성이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미달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가 아니라 청년 세대와 배우자를 비롯한 이른바 '부소득자(secondary earner)' 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6.07.15

[바] 총수요 곡선은 국민 경제의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에 각각의 물가에서 사고자 하는 총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또한 총공급 곡선은 일정 기간에 각각의 물가에서 경제 주체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총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총수요 곡선은 국내 총생산물에 대한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문의 수요량을 합한 총 수요량을 각각의 물가에 대응하여 나타낸 그래프를 말한다. 세로축에 물가, 가로축에 총생산(실질 GDP)을 나타낼 때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난다. 총공급 곡선은 세로축에 물가, 가로축에 총생산으로 나타낸 그래프에서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량이 증대되어 총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총수요 혹은 총공급을 구성하는 항목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한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사] 예상보다 심각한 고용 부진에 한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5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도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지난 1월 경제 전망에서 한은은 올해 연간 취업자수 증가가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그러나 4월 수정 전망에서는 26만명으로, 7월 18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저조한 물가 추이도 한은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근원물가가 3개월째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올 들어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1.1%였다가 4월 1.4%까지 오른 후 떨어지고 있다.

-[아시아투데이].2018.08.20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본 문항은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연관된 경제정책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 <경제> 과목에서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 언론 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정책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예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문항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전반부는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단축과 같은 정책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책 실시 이후 발생한 경제적 영향을 주어진 지문과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분석해 평가하는 과정이다. 최근 정부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고 구성원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단축이 있다. 그러나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경제 정책의 급작스런 실행은 예기치 못한 변동 요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문항을 풀어가야 한다.
문항 해결 과정의 후반부는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단축 정책의 실행 후 나타나고 있는 국내경제의 거시지표를 전통적인 경제 이론인 총수요-총공급 곡선으로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문항해설

제시문 [가]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기본 개념과 정책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목표가 소득하위집단의 소득 증대를 통해 유효 수요를 활성화 시켜 전체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정책임을 제기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사례를 제시한다. 최저임금제 이후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현상과 매출 및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제시문 [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된 근로시간단축 실행으로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 및 소득하위노동자집단이 실질적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제시한다. 대기업은 정부의 정책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한편 중소기업과 같은 경우 비용 증가에 대한 압박과 구인난으로 인해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해 근로시간단축은 소득하위집단의 실질적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주 목표인 소득하위집단에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시문 [라]는 근로시간단축 실행 이후 백화점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자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다.

제시문 [마]는 최저임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제가 저소득층을 도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유효 수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시문 [바]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 경제의 균형 물가와 균형 국내총생산을 총수요-총공급 곡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총수요-총공급 법칙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래프를 첨부하였고, 총수요 및 총공급량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함을 설명하였다.

제시문 [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실행 이후 나타난 국내 거시경제 현상을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를 통해 설명한다.

3. 채점기준 및 참고사항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주 대상은 사회적약자로 볼 수 있는 소득하위집단이며 이들의 수요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 선순환이 소득주도성장의 목표임을 제시문 [가]를 통해 기술하였는가?
- 제시문 [나]와 [다]를 서로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나], [다]의 사례를 이용하여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에서 기술한 본 목적과는 달리 소득하위집단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책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논하고 있는가?
- 제시문 [라]의 사례를 이용하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논하는 한편, 이 사례에서 나타난 정책 수혜자는 백화점 및 30대 40대 고객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목표 수혜 대상자인 소득하위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논하고 있는가?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문 [마]를 통해 제기하였는가?
- 제시문 [바]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제와 같이 생산 비용을 인상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총 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총수요를 구성하는 가계 소비, 기업 투자 등이 감소할 경우 총 수요 곡선 또한 좌측으로 이동함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제시문 [사]에서 볼 수 있는 실업률 증가와 물가 보합 현상을 설명하였는가?

4. 예시답안

[가]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은 소득 분배 및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구매력과 소비성향이 강한 소득하위집단의 소득을 증대시켜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나, [나], [다], [라], [마]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정책의도와는 반대로 저임금 노동자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인상 이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직원 수를 줄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금소득 하위집단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총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는 대기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가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기존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와 설비 투자 모두 감소 할 수 있으며 시간외 수당 등에 의존해온 저임금자 또한 소득이 감소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라]는 근로시간단축 이후 3-40대 소비자들의 구매력 향상으로 백화점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하위집단이라 구분하기 어려운 3-40대의 소비증가가 유효소비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의문의 제기된다. [마]는 최저임금 대상자의 60% 이상이 중산층이상 가구의 가구원에 속하므로 저소득층 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실행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소득하위집단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소득 불균형 문제를 가중시키는 한편 경제 선순환 효과 또한 크지 않을 수 있다.

[바]는 총수요 및 총공급 요인의 변화에 의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을 설명한다.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생산비용이 인상되면 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구매력과 소비성향이 강한 소득하위집단의 소비 감소가 중산층의 소비 증가 효과보다 클 경우 수요곡선 또한 좌측으로 이동해 새로운 균형점을 이룬다. 이를 통해 [사]의 지표에서 볼 수 있는 취업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동시에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